교환 프로그램

(막12:28-34)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80년대 장로회신학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모성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이름에서 가까운 발음으로 한국 이름으로 지으셨는데 호주에서 오신 백인이시고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신학자 폴 틸리히의 영어원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던 그 학생들 중에는 지금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과 함께 광나루 신학교 뒤쪽에 있는 워커힐로 산책도 하고, 또 워커힐 안에 있는 명월관에서 파는 갈비탕을 이 모성태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 명월관에 가서 갈비탕을 먹기도 했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좀 하셨기 때문에 호주교단의 분위기라든지 호주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참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대화를 참 잘하시고 즐겨하셨어요.
명월관에 가서 갈비탕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불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주라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교단에서는 술이라는 문제를 언제 어떻게 다루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호주에 가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호주의 문화적 특징들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와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그분이 원래 교수는 아니셨습니다, 선교사의 자격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교환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 자신이 외국으로 가게 돼서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프린스턴 신학교로 visiting scholar로 간 것도 국제교류협정, 그게 바로 교환프로그램입니다, 그 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갔는데, 우리는 교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교환교수나 교환학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가 가야지만 교환프로그램의 유익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성태 교수님처럼 그쪽에 온 사람에 의해서도 내가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환학생으로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 자리로 영국에서 학생이 한 명 오잖아요?
그러면 나와 교분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 그 영국학생으로 인해서 내가 영국으로 간 것 못지않은 유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환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가는 대신에 온 영국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환프로그램의 장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환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있어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교환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첫째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과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이 교환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장신대에서 누군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호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신에 모성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맞교환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환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생각하자면.
그러면 호주로 가신 그분이 호주가 좋아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모성태 교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의 이웃인 우리들이 똑같이 호주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영국이 좋아서 영국으로 갔는데 내가 영국으로 갔기 때문에 영국학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영국학생을 통해서 영국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영국 맛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내가 간 빈자리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국 맛을 내 주변의 이웃들도 한국 땅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교환프로그램이 바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원리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나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논쟁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 탁월한 지혜가 있으신 것을 보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화의 오고 감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32절 33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또 응수를 하시는데, '네가 하늘나라에 가깝다', 모처럼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우리가 짐작을 하건대, 서기관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던 유대사회의 신앙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날마다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양들이 번제로 드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사랑이 빠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혼자 힘으로 세태의 왜곡됨을 향하여 데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기에 속앓이를 하다가 예수님께 첫째계명을 묻습니다, 첫째계명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부들도 목수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첫째계명은 쉐마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께서 쉐마를 반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이마에 표를 달고 손에 경문을 차고, 그 조그마한 경문 박스 안에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넣고 다녔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그걸 물었고, 그 사람은 첫째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왜 이 두 번째 계명을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셨느냐?
첫째계명이 온전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증거가 바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이 같은 대상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면(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해서 사랑한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즉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쏟고 목숨, 목숨이라는 건 생명을 말해요, 프쉬케라는 것은 생명력,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유일한 주 하나님 한분뿐이고, 뜻,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인데, 뜻하는 바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 뜻의 유일한 대상이고 내 생명력의 유일한 대상이고, 내 마음의 유일한 대상이고, 내 힘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분에게 다 쏟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깁니까?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뜻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서기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할 때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의 소유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사랑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서기관의 특징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이 마음의 진실 된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말로만 하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워하는 건 돈이었어요, 돈.
그리고 권력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진짜 하나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이웃사랑도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마지막 주간에 일어날 일들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3분의 2를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3년 중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십자가사건은 이제 며칠 뒤에 일어날 일

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십자가가 뭡니까?
이 서기관이 속상해한 것처럼 제가 감히 속상해한다고 하면 교회가 십자가를 죄 사함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에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다 이루며 잘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각오가 돼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는 이 고백이 죄 사함을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려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I am no-body, I am not body, 나는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과 몸으로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십자가인데, 그게 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동시에 몸으로 이루어지고 만나게 되는 이 세상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음과 동시에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직장도 내 명예도 내 인생도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뜻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힘을 쓸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몸으로 만나게 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마음 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생각도 뜻한 바도 없고 힘쓸 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아니면 붙잡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주는 게 없고, 뜻하는 바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힘쓸 일도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 전체를 다 보내버렸을 때, 그 마음은 교환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누가 이 몸이 남아있는 자리에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의 말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갖고 싶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서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몸이 남아있는 곳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몸이 남아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살아있는 이유를 하나님께만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몸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움직이셔야 할 이유를 찾으십니다.
내 뜻이 내 생각하는 힘이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느라고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버렸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몸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몸과 만나는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펼쳐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생명력과 살아야 될 이유와 내 뜻과 내생각과 내 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다 가버렸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이 내 몸이 있는 자리로 와서 내 몸이 만나는 이웃들에게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갖고 싶어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돈으로 구제하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위로한다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고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십니까?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 돈이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게 건강이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식으로 키웁니다.
내가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자식을 키울 때 운동하라고 하고 태권도 배우라고 하고 수영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과 같이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교환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 자신같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고 있는 서기관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나를 내가 사랑한 것같이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바로 십자가사건이었다는 얘기지요.

이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게 가장 좋은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아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도 목숨도 힘도 뜻도 다 제로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맞교환이 되어서 내 몸이 남아있는 자리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몸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게 되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